

존경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교조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시작은 ‘노동조합’이라기보다 ‘양심의 외침’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그 시절,
“대학에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나로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침묵의 질서를 깨뜨리고 대학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교원노조법의 벽은 높았고,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거듭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행정 절차와 법적 투쟁 속에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8월 13일,
우리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단순한 행정적 성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사에 새긴 새로운 민주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교수도 노동자이며, 대학 또한 사회의 일부다”라는 진실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육부와 첫 단체협약 체결은 국립대 교수노동운동의 역사에 전례 없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부, 권익위원회, 국회, 노동부, 각 대학 현장에서
우리는 교권과 연구환경, 노동조건을 바로 세우기 위해 쉽 없이 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님, 권오현 거국련 회장님,
그리고 각 대학 교수회장님들의 헌신과 성원이 그 연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권오현 정책위원장의 헌신은 오늘의 국교조를 있게 한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국교조는
경북대, 한국교통대, 경상국립대, 금오공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해양대, 전남대, 제주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한국체육대, 충남대, 창원대까지—
전국의 국립대학이 함께하는 진정한 교수노동자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몇몇의 결단이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 교수들이 스스로 일어서 세운 역사적 성취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창립위원장으로 시작하여, 초대·2대·3대 위원장으로서
창립 준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헌신해 주신 모든 임원과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한 제가
때로는 조합원 여러분과 지회, 임원들께 서운함과 부담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의 명예와 대의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수노동의 존엄, 그리고 교육의 정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국교조는 더 이상 신생 노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립을 연대로, 저항을 제도로, 이상을 현실로 바꾼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수단체,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양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교조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제4대 위원장 최인철 교수님께 위원장직을 인계
합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창립 때부터 함께한 동지이자,
국교조의 실무와 투쟁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철저한 실천력과 품격은 이미 여러분의 신뢰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돌아가,
그가 이끌어갈 국교조의 새로운 도약을 굳건히 응원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6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과거의 투쟁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성취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국교조는 더 이상 '교수의 권익'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주체,
그리고 지식인의 양심과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민의 조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의 위기와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동의 이름으로, 연대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자는 다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미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연대의 힘은 그 어떤 제도적 장벽보다 강하고,
그 어떤 권력보다 오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6년의 창립기’를 넘어, ‘새로운 10년의 도약기’로 나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국교조는 더욱 단단해지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면 역사가 된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 그리고 뜨거운 동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